

지역 소식통

정읍시, 설 명절 대비 축산물 위생 · 부정 단속

정읍시가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지역 내 축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이력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의 수요가 급증하는 설날 명절을 대비해 축산물에 대한 위생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정읍시에 등록된 축산물 제조·유통·판매업소 200개소 중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부적합 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축산물 보관·운반 시 냉장·냉동 기준 준수 여부 △축산물 및 영업장 위생 적합 여부 △축산물 이력제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재점검 등을 실시한다. 또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의 경우 즉시 회수·폐기 및 식품안전나라 시스템에 업체 등록 등을 통해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설 명절 대비 축산물 위생관리 점검

부안군은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축산물 취급업소 107개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관리(축산물 이력제 특별단속)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한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위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 및 운반기준 준수 여부 등의 위생 점검과 함께 수입 축산물의 국산 분갑 판매위 축산물 이력제에 따른 이력번호 미기재 및 허위기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위반업체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취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령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풍요로운 정읍 반드시 이룩할 것”

이학수 시장, 새해 민생안정 · 지역발전 위한 5대 중점 추진과제 발표

“2023년 희망찬 계묘년의 신년 화두는 ‘새로운 시작, 희망의 정읍’으로 정하고 새롭게 성장하고 약진하는 희망 정읍을 이뤄나가겠습니다.”

이학수 시장이 신년을 맞아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핵심 시책을 담은 시정 운영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신 시민들 덕분에 시민 중심 으름 정읍의 초석을 튼튼하게 다지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 구절초 테마공원이 전북 최초로 지방 정원에 등록되는 경사를 맞았으며,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HIVE)에 선정되면서 2024년까지 3년간 국비 40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



다.

특히 2023년 국가 예산으로 작년 대비 320억원이 증가한 5,477억원을 확보했으며, 중앙부처와 전라북도 등의 열린 시정 구현 등을 통해 정읍의 위상을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양질의 출산과 양육환경 제공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59개월 이하 영유아 대상 육아수당 지원, 어르신 대상 무료 예방 접종 확대 등 요점에서 무담까지 이어지는 복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올해는 ‘새로운 시작, 희망의 정읍’을 신년 화두로 정하고 1,700여 공직자와 함께 풍요로운 정읍을 반드시 이룩할 것”이라며 “민선 8기 실질적 원년을 위한 힘찬 출발에 애정과 격려로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교육·문화·관광도시 조성 △안전하고 청정한 도시, 함께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도시 조성 △시민 참여를 통한 열린 시정 구현 등을 통해 정읍의 위상을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양질의 출산과 양육환경 제공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59개월 이하 영유아 대상 육아수당 지원, 어르신 대상 무료 예방 접종 확대 등 요점에서 무담까지 이어지는 복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올해는 ‘새로운 시작, 희망의 정읍’을 신년 화두로 정하고 1,700여 공직자와 함께 풍요로운 정읍을 반드시 이룩할 것”이라며 “민선 8기 실질적 원년을 위한 힘찬 출발에 애정과 격려로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벤처농업대 19기 신입생 모집

부안군 농기센터, 농업마케팅 · 약초활용가공 등 3개 과정 95명 규모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정혜란)은 오는 27일까지 농업마케팅반, 약초 활용가공반, 원예조경반 등 3개 과정 친환경 벤처농업대학 19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친환경 벤처농업대학은 학과별 30명~35명씩 모두 95명을 대상으로 2월부터 7월까지 이론교육, 현장학습, 실습 이상 중장기 교육을 진행한다.

농업마케팅반은 지능형 가계(스마트스토어) 입점 및 농산물 판매량을 높이는 판촉(마케팅) 교육, 인스타그램 · 판촉(마케팅) 활용 실습 교육 등으로 진행되며,

약초활용 가공반은 각종 약용 자원들의 육묘로부터 재배가공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습득 등 약

초 재배·관리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원예조경반은 기초적인 조경관리 및 실내외 정원의 조성에 필요한 이론과 현장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생활 원예조경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진행된다.

친환경 벤처농업대학 입학에 희망하는 농업인은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와 군청 홈페이지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 기간 내 농업기술센터에 응시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정혜란 소장은 “전문교육을 통해 지역의 농업인재를 양성하는 친환경 벤처농업대학 운영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농기센터, 농촌지도 시범사업 신청 접수

전북 고창군은 2023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대상자를 오는 2월 2일까지 신청·접수한다고 전했다.

올해 시범사업은 농업 신기술보급과 지역 특화작목 육성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것으로 보조금과 자부담을 포함해 총 38여만원을 투입한다.

총 32개 시범사업으로 △농업경영분야 초보 청년농부 성공모델 구축 등 6개 사업 △생활지원분야 식농학습 농장 지원 등 9개 사업 △환경농업분야 쌀가루 지역 자립형 생산·소비 모델 등 6개 사업 △경제적응분야 작은수확 브랜드 육성지원 사업 등 10개 사업 △특화작목분야 지역특화소득작목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 등 1개 사업이 있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연구회,

농업법인 등)로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농업기술센터 담당팀 및 읍면 농업인 상담소로 방문 접수하거나 등기 및 전자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분야별 담당팀 읍면 농업인상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군은 농업인화합동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현행영 소장 “이번 시범사업은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최신 농업기술을 보급하여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저탄소 농업기술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2023년 산림 분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정읍시, 8개 분야 77명 선발... 16~18일 시청 산림복지과에 신청

정읍시가 오는 16~18일 2023년도 산림 분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과 재정지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산사태 현장 예방단 △공공산림 가꾸기 △덩굴류 제거단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산림 병해충예찰 방제단 △도시녹지관리원 △숲길체험지도사 △숲생태관리원 등 8개 분야 총 77명을 선발한다.

응시 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정읍지역이어야 한다.

최근 3년 이내 2년 초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반복 참여자는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일자리 분야별로 응시 자격과 기간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근로 시간은 1일 8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5일 근무원칙이며 작업별·시기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

하는 자는 정읍시청 산림복지과☎ 539-5755, 5765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참여 대상자 선발 시 취업 보호 대상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자리사업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에 일자리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산불 발생과 소나무 재선충 등 산림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지원사업 접수

고창군이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농업용 지게차, 굴삭기, 농업용 로더 등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고창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이 해당된다. 면허취득 교육비 40만원 중 20만원이 지원된다. 이달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소형 특수농기계는 총중량 3톤 미만의 특수 농작업을 건설기계장비로 최근 고령화와 규모화로 인해 최근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 고창군은 지난해까지 5년간 500명이 넘는 농업인들에게 면허증 발급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소형농기계 임대건수도 600건을 웃돌면서 농작업 활용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밖에 군은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지원 등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농기계 교육 사업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고창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농기계 사고 발생률을 낮추고 농업 생산성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